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와 경제정책 전망

- 박미숙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044-414-1105)

차 례 ●●●

1. 대통령 선거 결과
2.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내용
3. 향후 경제정책 전망

주요 내용 ●●●

- ▶ 2015년 11월 22일 대통령 선거에서 친기업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후보가 당선
 - 1999년 이후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연속 집권하였으나, 2015년 대선에서 우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 신정부는 전 정부가 실시한 과도한 경제개입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악화된 경제상황을 정상화할 계획
 - 외환규제 철폐: 전 정부에서는 외환 보유고의 부족으로 외환 사용을 통제하면서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나 신정부는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환전을 자유화함.
 - 무역규제완화: 농산물에 부과해오던 수출세를 대부분 폐지하고, 최대 수출농작물인 대두 수출세는 5%p 인하함.
 - 재정적자 개선: 에너지와 교통 부문의 보조금을 삭감하여 재정적자를 개선할 계획임.
 - 기술적 디폴트 해결: 아르헨티나는 2014년 7월 30일부터 기술적 디폴트 상태인데, 신정부는 채권단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디폴트 상황을 해결하여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을 재개할 계획임.
 - 정확한 정부 통계 발표: 그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 통계를 실제보다 낮추어 발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나, 공신력 있는 통계를 작성할 계획임.
- ▶ 신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물가, 디폴트, 외환부족과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아르헨티나 국내 여론조사 기관인 OPSM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신정부 취임 이후 경제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함.
 - [고물가] 외환규제 철폐에 따른 폐소화 절하와 에너지 및 교통 부문 보조금 삭감에 따른 요금 상승으로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 [외환 부족] 정부는 농산물 수출세 인하로 수출이 늘어나 외환보유고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두 수출세는 35%에서 30%로 소폭 인하되어 유지되기 때문에 수출세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디폴트]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 진행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대통령 선거 결과

■ 2015년 11월 22일 대통령 선거에서 친기업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후보가 당선

- 마크리는 보수 우파 성향의 정당인 PRO(Propuesta Republicana) 소속이며, 당선 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을 역임함.
- 기업인 출신인 마크리는 2003년 중도 우파 성향의 '변화를 위한 약속(Compromiso para el Cambio)'이라는 정당을 설립하면서 정계에 데뷔하였고, 2007년과 2011년 연속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에 당선됨.
- 1999년 이후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연속 집권하였으나 2015년 대선에서 우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1999년 페르난도 데 라 루아 대통령을 시작으로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2003~07년)와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2007~15년) 부부가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함.
- 10월 25일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선두를 달린 마크리와 시올리 후보를 두고 11월 22일 결선투표가 실시되었으며, 마크리가 최종 2.8%p 차이로 승리함.
- 마크리는 우파 정당인 PRO당 출신으로 연합 정당인 '변화합시다(Cambiamos)'를 결성하여 출마하였고, 다니엘 시올리는 키르츠네르 정부 시절의 여당인 '정의당(PJ: Partido Justicialista)' 출신으로 연합정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FPV: Frente para la Victoria)'에서 출마함.
- 1차 투표에서는 시올리 후보가 36.86%를 득표하여 마크리 후보(34.33%)를 앞섰으나, 결선투표에서 마크리가 역전승을 이룸.

표 1. 2015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

(단위: %, 표)

		마우리시오 마크리	다니엘 시올리
결선 투표	득표율	51.4%	48.6%
	득표수	12,903,301	12,198,441
1차 투표	득표율	34.33%	36.86%
	득표수	8,382,610	9,002,242

자료: La Nación.

- 마크리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 정부에서 실시했던 과도한 경제 개입을 지양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2015년 12월 10일 공식 취임함.

2.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내용

가. 최근 경제 현황

■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 정부 시절(2007~15년) 농산물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기업활동과 외국인투자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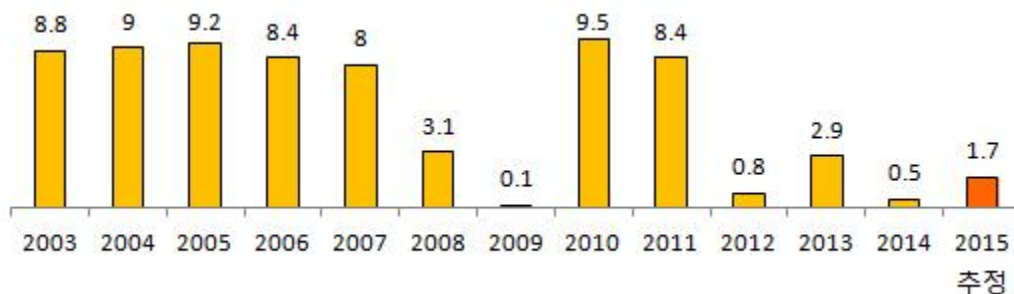
- 키르츠네르 정부는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환사용 통제와 무역규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외환 유입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됨.

■ [성장률] 최대 수출품인 곡물가격의 국제가격 하락과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저성장, 브라질의 경기침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의한 생산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저성장이 지속

- 중국의 성장과 함께 곡물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아르헨티나 경제는 8~9%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2년부터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4년의 성장률은 0.5%에 그쳤고, 2015년 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¹⁾

그림 1. 아르헨티나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세계은행,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표 2. 아르헨티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성장률	%	0.8	2.9	0.5
수출	십억 달러	80	82	72
수입	십억 달러	65	71	63
물가상승률	%	25.6	22.9	38.2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43.25	30.53	31.40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물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9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은 약 26.2%²⁾에 도달

- 민간에서 추정하는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2014년 약 38.2%에 달했고, 2015년에는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26.2%로 여전히 높은 상황임.³⁾

1) 2003~14년 성장률 데이터는 세계은행 자료이며, 2015년 성장률 추정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자료임.

2)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민간에서 추정하는 물가 데이터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물가 통계를 사용함.

3)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민간에서 추정한 수치를 사용함.

■ [외환 사용 통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여 달러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함.

- 정부가 2010년 외채 상환에 외환보유고 약 200억 달러를 사용하며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였고, 최근에는 국제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최대 수출품인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을 통한 외환 유입도 감소함.
- 수입 금액이 20만 달러를 넘는 경우 환전 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고, 일반 송금은 5,000달러 초과 시 승인을 요구하였음.
-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관광 목적의 달러 환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공식 환율에 비해 35% 높게 환율을 적용하였음.

■ [무역 규제] 수입에 사용되는 달러를 제한하기 위해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정책과 사전수입신고제를 실시하고,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주요 수출 농산물에 수출세를 부과

- 수입 쿼터(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정책)⁴⁾: 완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금액의 수출 실적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로, 2011년 시행 초기에는 자동차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액에 상응하는 수출 실적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는 모든 완제품 수입업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됨.
 - 완제품 수입업체는 다른 기업의 수출 실적을 커미션을 주고 매입하여 자신의 수출 실적으로 제출함.
-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2012년 2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모든 수입자는 사전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농축산물 수출세: 농축산물은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대 수출품인 대두를 비롯하여 쇠고기, 옥수수, 밀 등에 15~35% 수준의 수출세를 부과함.

나.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 신정부는 과도한 경제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악화된 경제상황을 정상화할 계획

- 재무부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농업부, 생산부, 교통부, 에너지광업부 등에 기업인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그간의 규제를 풀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할 것을 예고함.
 - 외교부 장관인 수사나 말코라는 IBM 임원이자 아르헨티나 텔레콤 CEO를, 재무부 장관인 알폰소 프라트-가이는 JP 모건 임원을, 생산부 장관인 프란시스코 카브레라는 HSBC 임원을, 에너지광업부 장관인 호세 아란구렌은 로얄 더치 셸의 아르헨티나 CEO를, 교통부 장관인 기예르모 디트리치는 자동차 유통기업의 CEO를, 농업부 장관 리카르도 부르야일레는 농업협회 부회장을, 관리현대화부 장관인 안드레스 이바라는 마크리 그룹의 임원을 역임했음.
- 마크리 대통령 자신도 기업인이자 아르헨티나 유명 축구구단인 보카 주니어스의 구단주 출신이고, 그의 가족은 아르헨티나의 유력 기업인 마크리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유리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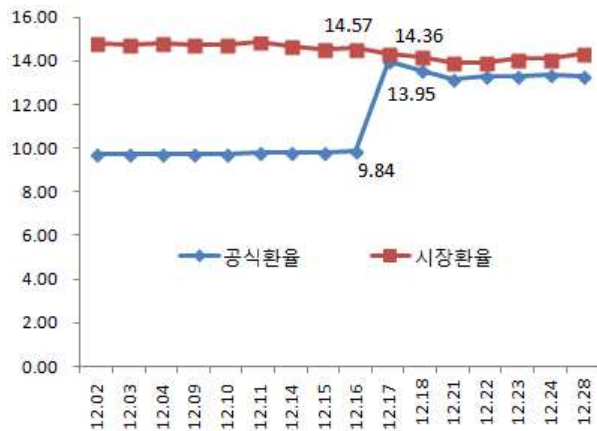
4)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국가정보 중 수입규제제도의 내용을 인용함.

■ 외환규제 철폐

- 12월 17일부터 그간 적용되던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환전을 자유화하여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일원화를 유도함.
- 키르츠네르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외환 사용을 통제하면서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왔음.
- 12월 16일 기준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공식환율은 달러당 9.8페소이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암시장)은 달러당 14.6페소였음.

그림 2. 아르헨티나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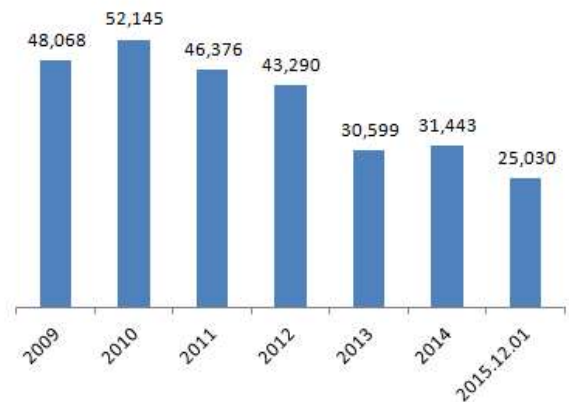
(단위: 페소/달러)



자료: ambito.com.

그림 3.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 그러나 신정부는 환전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던 제도를 철폐하여 20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매입을 허용하고, 해외에서의 신용카드와 관광 목적의 달러 환전 시 적용되던 환율도 폐지함.
- 기존에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와 관광목적의 달러 사용 시 35%의 세금을 부과하여 환율을 높게 책정했으나, 변화된 정책에서는 관광 목적의 달러 매입에 5%의 세금만 부과함.

표 3. 아르헨티나 환율(2015년 12월 16일, 외환규제 철폐 이전)

(단위: 페소/달러)

종류	공식 환율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광에 적용되는 환율	시장 환율
환율	9.8	13.3	14.6

자료: ambito.com.

- 신정부는 곡물 수출증가와 해외 은행과의 협약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여 환전자유화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12월 17일부터 사전 승인 없이 환전을 허용하고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지 않자 공식환율이 달러당 9.8페소에서 13.95페소로 급격히 절하하여 시장환율에 근접함.

-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식환율 절하로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함.

■ 무역규제 완화

- 12월 17일부터 농산물에 부과해오던 수출세를 대부분의 품목에서 폐지하고 최대 수산물작물인 대두에 대한 수출세는 5% 인하함.
 - 쇠고기, 밀, 옥수수에 부과하던 수출세(각 15%, 23%, 20%)를 폐지함.
 - 키르츠네르 정부는 최대 농산물 수출 품목인 대두에 35%의 수출세를 부과해 정부의 재정을 충당해왔으나, 신 정부는 세율을 35%에서 30%로 낮춤.
-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출세가 생산자의 수익성을 낮추며 수출업자들이 수출을 꺼리는 요인이 되어왔음.
 -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가 농산물이고 상위 수출 품목도 농산물이어서 2011년에는 농산물 수출세로 얻는 조세수입이 정부의 전체 조세수입의 약 10%까지 차지하였음.⁵⁾
 - 수출업자들은 수출세의 부담으로 인해 곡물가격과 환율이 우호적인 시기를 기다리며 수출을 하지 않고 곡물을 보관해두었는데, 그 양이 60~9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신정부는 폐지되거나 낮아진 수출세로 인해 그간 저장됐던 곡물의 수출이 재개되고 생산도 늘어나 외환 유입과 소득세를 통한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최대 수출작물인 대두에 대한 수출세는 세율을 낮추어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세 폐지 및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대두 수출세는 35%에서 30% 낮추어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계획임.
 - 대두 수출세에서 얻는 조세수입은 전체 농산물 조세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세 폐지와 인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표 4. 아르헨티나의 상위 10대 수출품(SITC 3단위)

(단위: 백만 달러, %)

상위 10대 수출품	2013~14년 평균 수출 금액	비중	누적 비중
사료(대두 사용)	12,446	17.2	17.2
옥수수	4,686	6.5	23.6
식물성 기름(대두 사용)	4,403	6.1	29.7
식물성 기름 추출용 씨앗	4,330	6.0	35.7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 차량	3,991	5.5	41.2
승용자동차 및 기타 차량	3,604	5.0	46.2
금	1,838	2.5	48.7
원유 및 역청질 광물 원유	1,678	2.3	51.0
기타 화학제품	1,442	2.0	53.0
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1,283	1.8	54.8

자료: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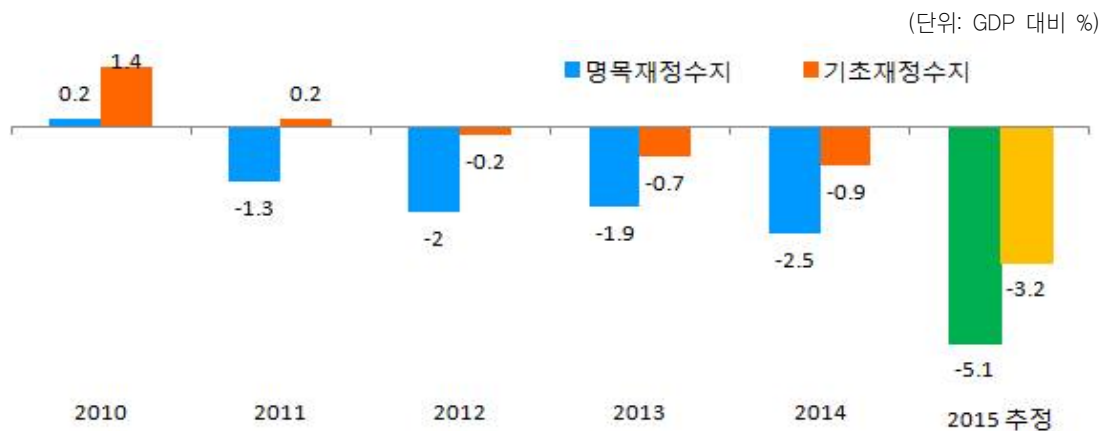
5) 2015년에는 약 5% 수준으로 하락함.

-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폐지하고 포괄적 수입 모니터 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도입함.
- o SIMI는 수입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부처는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제도임.
- o 사전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SIMI와 DJAI는 동일하나, SIMI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입신고제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짐.

■ 재정적자 개선

-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기초재정수지는 2012년부터 적자로 전환됨.
- o 2014년에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0.9% 적자와 명목재정수지 2.5% 적자를 기록함.
- o 2015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여 명목재정수지와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5.1%와 3.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아르헨티나의 명목재정수지와 기초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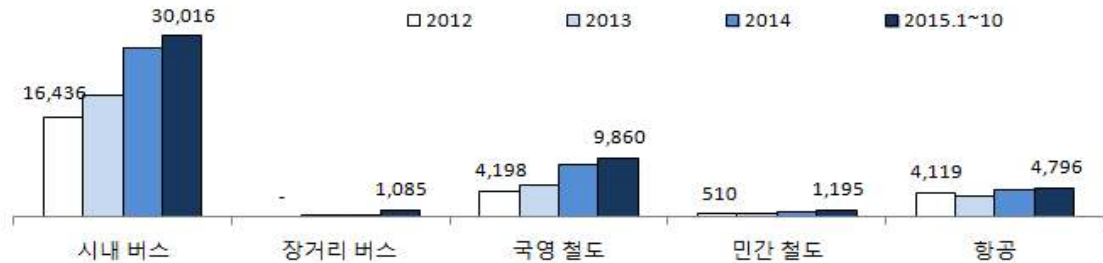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신정부는 기존에 지급하던 에너지와 교통 부문의 보조금을 삭감하여 재정적자를 개선할 계획임.
- o 2001년 디폴트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동결시켰는데, 그 정책이 이후로도 지속되면서 에너지 보조금은 정부 재정적자를 야기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
- o 일레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거주하는 중상위 계층 가계가 부담하는 전력요금은 월 약 2달러 수준이며, 아르헨티나 전체 가정의 약 16%가 무료로 전기를 사용함.
- o 2015년 1~10월 동안 정부가 교통 부문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469억 페소(약 35억 달러)로, 2012년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함.

그림 5. 아르헨티나의 교통 부문 정부보조금 추이

(단위: 백만 페소)



자료: La Nación.

- 신정부는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지만 에너지 사용료 납부 능력이 있는 가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준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임.

■ 기술적 디폴트 해결

- 아르헨티나는 2014년 7월 30일부터 기술적 디폴트 상태를 지속해왔음.
 - 2001년 디폴트 채권을 보유한 헤지펀드가 미국법원에 원금상환 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6월 승소하여,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에 13억 3,0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함.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헤지펀드에 대한 협상 및 원금 상환을 거부하자 미국 은행이 아르헨티나의 미국 계좌를 동결함.
 - 아르헨티나는 미국 소재 은행을 통해 다른 채권단에 이자를 지급해왔으나, 계좌동결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어 2014년 7월 30일부터 기술적 디폴트⁶⁾ 상태에 놓임.
 - 키르츠네르 정부는 헤지펀드에 채무를 상환할 경우 2001년 디폴트 채권의 채무구조 조정에 참여했던 채권단도 동일한 원금상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헤지펀드와의 협상에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였고, 현재지 디폴트 상태를 유지함.
- 신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아돌포 프라트-가이는 헤지펀드와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디폴트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 발표함.
 - 아르헨티나의 재무부 팀은 12월 21일 협상 중재인을 만나 2016년 1월 둘째 주부터 헤지펀드와의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그간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상태로 인해 해외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차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신정부는 디폴트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제 자본시장에 복귀하고자 함.

■ 정확한 정부 통계 발표

6) 기술적 디폴트는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출 약정상의 다른 조건을 지키지 못해 맞게 되는 경우를 가리킴.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 이외의 채권단에 대해서는 채무액을 상환할 의지가 있고 자금 또한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내 계좌가 동결되어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맞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술적 디폴트로 분류함.

- 그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 통계를 실제보다 낮게 발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음.
 - 2015년 10월 기준으로 정부가 통계청(INDEC)을 통해 발표하는 연간 물가상승률은 14.3%이지만, 민간에서는 약 2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신정부는 그간 정부의 부정확한 통계에 대응하여 민간에서 물가 통계를 작성하던 호르헤 토데스카(Jorge Todesca)를 통계청(INDEC)의 수장으로 임명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 작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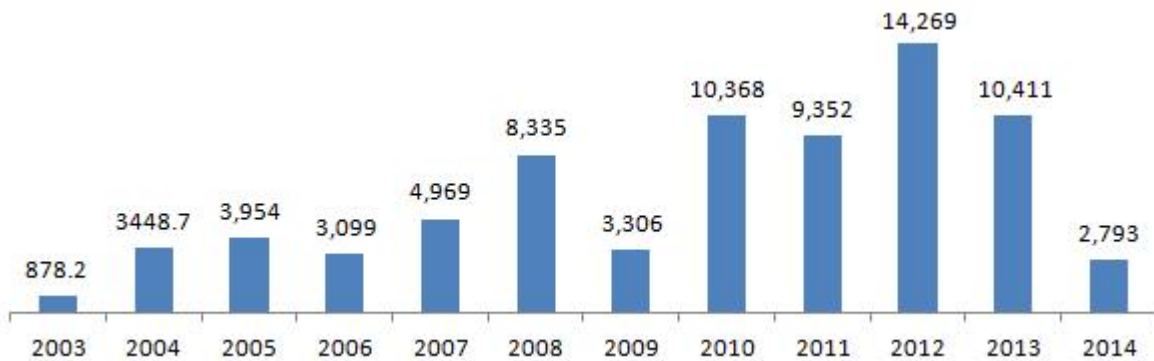
3. 향후 경제정책 전망

■ 신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이 기대

-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곡물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나친 경제 통제로 기업활동이 힘들어 지면서 국내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투자도 감소함.
 - 2012년 약 143억 달러였던 FDI 유입액이 2014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함.

그림 6. 아르헨티나의 순 FDI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중남미경제 위원회.

- 신정부가 실시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국내 여론조사기관인 OPSM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약 63%가 신정부 취임 이후 경제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함.⁷⁾

■ 그러나 고물가, 디폴트, 외환 부족과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7) Oxford Analytica(2015), "Macri Argentina win is not vote for market dominance."

■ [고물가] 페소화 절하와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노력에 제동이 예상

- 페소화 절하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 신정부가 12월 17일 환율규제를 철폐한 이후 페소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달러당 약 9.8페소 수준이었던 공식환율이 달러당 약 13.3페소(12월 28일 기준) 수준으로 유지됨.
- 신정부는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에너지와 교통 보조금을 줄일 계획인데, 이로 인해 요금이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 [외환보유고] 정부는 수출세 인하로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 외환보유고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예상한 대로 수출이 증가할지 여부는 불확실

- 특히 대두에 대한 수출세가 35%에서 30%로 소폭 인하되어 유지되기 때문에 수출세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디폴트]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 진행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신정부는 헤지펀드와의 협상을 통해 기술적 디폴트를 타계하고 해외에서의 차입을 재개하려 하지만,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 시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시할 모든 조건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그러나 디폴트 해결에 있어 FPV당과 여당인 PRO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PRO당이 수적으로 열세함.
- 국회에서 PRO의 의석수는 상원 72석 중 4석과 하원 257석 중 41석에 불과하지만, FPV는 상원 43석과 하원 117석을 차지하고 있어 디폴트 해결 시 현 정부가 제안할 안건의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IEP

표 5. 아르헨티나 의회의 정당별 좌석 수

(단위: 석)

상원		하원	
정당	의석수	정당	의석수
FPV와 연합 정당	43	FPV와 연합 정당	117
UCR, CC	11	UCR, CC	50
PJ no K	9	PRO(현재 여당)	41
PRO(현재 여당)	4	PJ no K	36
PS, GEN	2	PS, GEN	9
기타	3	Izquierda	4
전체	72	전체	257

자료: La Nación,